

海外情報

世界肥料의 景況, 向後 1 年程度 더 低迷狀況 계속될듯

今年 TFI 總會에서 情勢意見 集約

昨年以來 深刻化되고 있는 世界肥料의 不況은 向後 1 年程度 더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3 年을 걸쳐 長期不況이 계속되는 것으로 史上最惡의 事態라고 볼 수 있음.

世界肥料不況이 向後 1 年程度 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은 지난번 9月 12 ~ 15 日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美國肥料協會(TFI) 國際總會에서의 各國肥料 關係者들의 意見과 情報 交換에 依한 集約된 見解임.

同 TFI 總會에 우리나라에서도 綜合化學 盧載鉉 社長과 南海化學 朴熙東 社長이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總會에는 世界的인 肥料不況下에서도 各國으로부터 800 ~ 1,000 餘名이 參加하였는데 通常의 1,300 ~ 1,400 名의 參加에 比해 多少 적은 人員 이었다 고 함. 그러나 參加者 모두가 어느해 보다 진지하게 서로 國際 情勢 및 情報交換을 나누므로써 今後의 世界肥料市況展望을 分析해 보기도 하였다. 其 結果

- ① 國際市況은 如前히 低迷現狀이 계속될 것인바 各 maker 是 Cost 的으로는 이전 限界點까지 왔기 때문에 이 以上 더 價 格面에서 지금보다 더 下落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 ② 向後의 展望은 共通的으로 1 年程度 不況상태가 더 계속 될

것이라는 見解가 支配的으로 集約되었다.

- ③ 한편 樂觀的으로 보는 側에서는 半年程度를 展望하는 側도 있지만 이에 反해 悲觀的으로 보는 側에서는 적어도 2年程度는 不況이 더 계속될 것이라는 兩論이 있는데 大體的으로 1年을 보는 側이 支配的이었다.

이러한 長期不況의 背景에는

- ① 美國: 穀物市況의 惡化계속
- ② “달라”貨 強勢
- ③ 印度, 中共, 中南美 및 라틴아메리카圈의 肥料購入量 減少現狀
- ④ 따라서 海外需要도 不振하여 輸出物量 減少等으로 各國의 肥料生産, 減産態勢의 持續 등을 들 수가 있다.

한편 이러한 條件外에도 朝鮮 및 東歐圈에서의 投賣現狀의 계속으로 國際市況의 不투명화와 中南美 等の 金融不安 激化等, 거기에다가 世界經濟가 全體的으로 不況한 것도 그 背後의 要因이 될 수도 있다.

또 한편 製品別로 보면

- ① 加里는 Source가 限定되어 生産調整으로 需給 및 市況의 回復에 努力함으로써 보다 빨리 回復될 것이며
- ② 암모니아는 얼마간은 계속 國際市況이 低落현상을 유지할 것이고
- ③ 尿素는 世界的으로 遍在해서 需給 및 市況의 回復이 當分間은 不可能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當장 情勢好轉을 期待하기는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음.

④ 磷酸은 加里와 窒素의 中間的인 狀況임.

따라서 이번 TFI 國際總會는 처음부터 不況一色으로 低調한 分
위기 속에서 始終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肥料業界로서는 世界市況의 흐름에 無關心할 수도 없
을뿐 아니라 生産, 流通, 消費 및 輸出面에서 보다 合理的이고 經
濟的인 方案을 강구 지금부터 充分한 檢討와 對策을 樹立하지 않
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파키스탄” 도 尿素輸出에 參與

“네팔” 肥料入札에 처음으로 登場

파키스탄은 最近, 尿素輸出에 意欲을 表示했는데 이것은 지난 9
月 10日 네팔 肥料入札에 W&D를 통해서 처음으로 輸出할 것을
表面化 하였다.

지금까지 尿素의 輸入國이었던 “파키스탄”이 이번에 과연 輸出
實績을 올릴 수 있을런지 對해 業界에서는 큰 關心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2年 尿素輸入國으로부터 輸出國으로 變換 後發肥料生産
發展途上國은 방구라데시, 스리랑카 等인데 이들 나라는 自國消費를
充足하고도 剩餘分이 생겼기 때문임.

그 例로서 最近에는 방구라데시가 尿素에 對한 買賣入札을 實施
한 것을 비롯해서 “스리랑카”가 버-마에 尿素를 輸出한 것이

그 한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러한 後發肥料生産發展途上國에 이어 이번에는 “파키스탄”이 “방구라데시”와 함께 “네팔” 肥料入札에 처음으로 登場함으로써 輸出할 것을 明確히 밝힌 것으로 業界에서는 해석하고 있음. 卽 “파키스탄”은 尿素에 있어서는 需給面에서 好轉되었기 때문에 昨年 日本의 第2 KR에 依한 輸入도 거절하고 代身 隣安을 購入하였다고 함. 또 最近 日本의 肥料關係者が “파키스탄”을 訪問해서 尿素輸出商談을 한 結果, “同國은 “이젠 尿素輸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表明한 것으로 傳하고 있는데 業界에서는 “파키스탄”의 尿素가 對外供給 餘力을 어느정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輸出에 참여할 것인가에 對해 자못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음.

印尼, 83 年에도 海外肥料大量輸入檢討

尿素等 4 品目 100 萬屯規模

印尼商業省의 政府機關은 지금 83 年度의 肥料需給計劃을 檢討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中에서 海外肥料의 輸入計劃案을 보면 尿素等 4 品目으로 最大 100 萬餘屯의 規模가 될 것이라고 함. 印尼商業省이 이번에 來年度에도 海外肥料를 大量 輸入키로 最終적으로 決定을 한다면 그 規模는 82 年에 이어 大量 購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印尼政府機關이 83 年度分 肥料需給計劃 策定作業에서 海外肥料를 輸入케 된다면 두가지 case 를 檢討케 될 것이다.

첫째 case 는, 尿素 20 萬屯, 硫安 12 萬屯, TSP 4 萬屯 및 鹽加 38 萬屯等 合計 64 萬屯의 購入計劃案과 둘째 case 로는 尿素 44 萬屯, 硫安 10 萬屯, TSP 14 萬屯 및 鹽加 38 萬屯等 合計 106 萬屯의 購入計劃案을 놓고 檢討하게 될 것이다.

한편 一部 情報에 依하면 同國은 오는 10 月~ 11 月中에 100 萬屯 規模의 肥料入札을 考慮중에 있는 것으로 傳하고 있는데 만약 이 入札이 實施된다면 國際적으로 肥料商談이 閑散한 요즘 業界에서는 至大한 關心事라 할 수 있다.

IMC , 今年 食糧生産會議 1 年間 延期

美 IMC 社가 밝힌바에 依하면 今年 12 月上旬 泰國 방콕에서 開催豫定이었던 第 18 回 「아세아 太平洋地區食糧生産會議」를 1 年間 延期한다고 正式으로 決定 發表하였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 等地 地區의 同會議도 自動적으로 延期하기로 하였다고 함.

同社(IMC)의 食糧生産會議는 民間企業으로서 獨自적으로 各地區에서 每年, 肥料 및 農業關係者等이 參加해서 「肥料와 食糧 關係에 對한 諸問題」에 對해서 講演 및 意見交換을 가지므로서 많은 成果를 거두어 왔었다.

한편 IMC 가 밝힌바에 依하면 今年會議을 1 年間 延期하여 來年 12 月 5 ~ 9 月까지 泰國 “방콕”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였다고 함.